

베트남에서의 케어에 관한 고찰

— 자선시설 및 가족케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

하고로모국제대학 (羽衣国際大学) 시부야 테루미 (渋谷光美)

베트남에서의 케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호치민시 불교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시설 및 다이옥신 피해가족의 개별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조사에 있어 윤리적 배려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뒤 동의를 얻어 2013년 7월20~23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13년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협력자인 후지모토 분로우(藤本文朗)와 공동조사로 실시하였다. 각 조사 대상자 트즈병원 의사,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VAVA) 여러분을 비롯하여 조사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친척이 없는 노인을 케어하고 있는 불교사찰】

• 이 사찰은 20년전부터 친척이 없는 빈곤층 노인여성을 케어해 왔다.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국내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식사, 배설, 샤워 등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용자가 **40명 이상**이다

이 절에는 2명의 승려의사가 있지만, 월1회 병원의가 진찰과 약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전문자격은 없지만 재활훈련도 하고 있음
• 휠체어 사용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샤워이동 등에 한하여 사용하고, 4구지팡이 워커 등을 이용하고 있음



• 현재는 친척이 없는 빈곤층 노인여성 **134명**만이 입소하고 있음.
• 2년전 증축했지만, 자리가 부족한 상태. 입소희망자 가운데 정말로 곤란한 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 케어 담당자인 비구니는 12명. 날마다 다른 절의 비구니, 자선단체, 학생 등의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식사, 청소, 말동무 등 입소자 생활과 관계하고 있음



어려움은 많지만, 선의와 자비로 적극케어하고 있음

절의 부담으로 1인/연간7동(350엔)의 의료보험에 입소자,비구니가 전원가입하고 있음. 돌아가셨을 경우 납골도 하고 있다.



식사보조는 침대 위에 누운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침대는 고정식으로 바닥매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 침대 간 칸막이가 거의 없으며 약간의 공간도 없이 늘어서 있는 곳도 많았다.
• 개인물품은 침대위, 침대 밑 공간에 놓아두었으며 벽에는 개인의 신앙물품 등이 많이 걸려져 있었다.

• 케어가 필요한 분과 많은 입소자가 접이식 여름침대에서 종일 지내고 있었다.
• 식사 또한 침대위에서 해결
• 간이화장실이 설치 되어진 침대도 있음
• 종이기저귀도 사용하고 있었지만, **소변 등으로 오염되거나 한다면 바로 침대에서 세정하고 있었다.**

• 배회나 문제행동의 어르신께는 다양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 과자를 주거나 스킨쉽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 건강하신 분은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입소자 상호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샤워는 매일아침 실시하며, 입소자의 청결은 유지되지 않았다.

개인사생활은 지켜지지 못했으며 케어 환경 상 악조건의 실태였다. 입소자는 길가에 쓰러지기 전 생활상태에서 겨우 살아가기 위한 장소를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어떠한 체념이 혼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삶의 희망과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다.

케어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베트남 사회실태를 통한 독자적 관점, 시점에서 재고해보면 다른 측면에서의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열대기후로 우기와 건기가 있는 지역특성 상, 집단케어의 이점이 활용되고 있었다. 합리적으로 위생면, 의료적인 문제 또한 잘 대응하면서 자선적 사상과 활동지원을 받으며 케어를 하는, 적극적 측면이 많이 발견되었다..

【다이옥신 피해2세대에 대한 가족케어】

여성,23세, 장녀, 뇌성마비, 지적장애, 의사소통은 곤란, 보행은 가능하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눈을 땔 수 없음. 식사를 싫어함. 변비로 인한 고생. 샤워는 온수가 나오지 않음. 근처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음. 재활훈련은 유료여서 받고 있지 않음. 주 보호자인 모친이 자궁암

남성,36세,장남, 뇌성마비, 지적장애, 간단한 내용은 이해하고 복수의 단어도 말할 수 있다. 왼쪽 팔을 움직여 잡아주면 혼자서 섭취가능. 침대에서 이동대차로의 트랜스는 동생역할로 부모가 할 경우 둘이서 안고 해야함. 기저귀는 없으며 오염되었을 시 샤워를 함. 병원에 갔던 적이 없고 휠체어는 모른다고 함.

남성,18세,차남,뇌성마비,언어장애,지적장애, 사지마비, 유소년기까지 누나가 돌보았지만,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친이 일을 그만두고 주된 돌보미가 됨. 배설은 알려주기 때문에 간이변기를 사용. 신체케어의 부담이 큼.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근처에 여자친구가 살고 있음

여성,45세,장녀, 수두증, 의사소통 문제없음.생후 2개월까지 몸을 가눌수 있었지만, 그후 머리부위가 비대해지고 무거워져 가눌 수 없게 됨. 양팔은 움직일 수 있다. 식사는 머리부분을 올려 스스로 섭취. 침대위에서 스스로 체위변경도 가능. 앉아있지는 못함. 모친이 건강해서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기쁘다고 함.